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육 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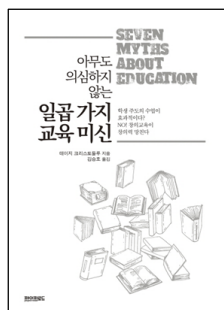
임기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Seven Myths about Education

Ki-Young Lim

Department of Psychiatry and Behavioural Sciences,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저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육 미신

저자: 데이지 크리스토틀루 지음, 김승호 옮김

출판사: 페이퍼로드

출판연도: 2018년

쪽수: 271쪽

의학교육은 오래 전부터 주입식 암기교육(rota learning)의 대표적인 사례였고, 이에 대한 무수히 많은 비판과 함께 여러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학생중심교육과 문제바탕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통합교육을 강조한 Harden의 SPICES 모델일 것이며, 지금은 성과바탕학습, 역량중심학습이 의학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따라야만 하는 금과옥조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미래에는 상상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리더십 등 소위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고, 암기를 통해 습득하는 기본지식, 즉 하드 스킬은 별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교육전문가인 데이지 크리스토틀루 박사는 이와 같은 교육계 전반의 믿음, 새롭고 굳건한 주류 이론에 대해 강한 의문과 반론을 제기한다. 그녀가 문제 삼는 7가지 교육 미신은 다음과 같다.

1. 지식보다 역량이 중요하다.
2. 학생주도학습이 효과적이다.
3. 21세기는 새로운 교육을 요구한다.
4.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
5. 전이 가능한 역량을 가르쳐야 한다.

6. 프로젝트와 체험활동이 최고의 학습법이다.
7.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의식화 교육이다.

크리스토틀루 박사는 진정한 개념 이해, 고차원적 역량개발, 학생 주도학습 등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히 교육의 궁극적 목표들이다. 다만 사실적 지식의 습득, 배경지식의 암기 등 전통적인 교육이 혁신적 교육의 장애물이고, 따라서 현대교육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이분법적 주장에 반대하는 것이다. 개념의 이해나 역량개발은 배경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구구단은 장기 기억의 일부로 외워 두어야 그 다음 단계의 수학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영국 사람들에게 ‘Jones sacrificed and knocked in a run.’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해보라. 이 문장에서 그들이 이해 못할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대부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야구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한 미국인들은 ‘존스라는 야구 선수가 희생플라이를 날려 1득점을 했다’는 의미임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크리스토틀루 박사는 영국과 스페인에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서도 기본지식과 술기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축구를 배울 때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11명씩 양 팀을 만들어 성인 축구장에서 게임을 하게 한다. 어렸을 때부터 실전 경험을 많이 쌓으면 축구실력이 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마치 의학교육에서 PBL이나 조기 임상

실습을 통해 처음부터 많은 증례를 접하면 임상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공 다루기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특히 열심히 뛰지 않고 어슬렁거리는 아이들이 생긴다. 이에 반해 스페인에서는 처음에는 공을 골대에 넣는 연습은 금지하고, 매우 좁은 공간에서 원뿔을 맞추는 연습만 반복해서 시킨다. 그 후 한 팀당 다섯 명에 운동장도 작고 골대도 작고, 오프사이드 반칙도 없는 풋살을 시키고, 14살이 넘어야 비로소 정규 축구시합을 허용한다고 한다.

의학교육에서 통합교육, PBL, flipped learning, 역량중심교육 등 새롭게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소개될 때마다 그 당위성이나 효과와는 별개로 이 방법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암기하고 있어야 할 기본지식, 배경지식, 핵심지식(의학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의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자기주도학습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는 학생들을 제대로 걸러내어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될 때가 많았다. 특히 기본의학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첫 1-2년의 교육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 이 책,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일곱 가지 교육 미신'은 우리가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외국에서 개발된 교육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조급하게 수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학습의 본질에 확고한 기반을 둔 우리만의 의학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